

순천만습지~국가정원~동천 연결...“도시 전체가 정원”

2023정원박람회 청사진 나왔다

시 ‘정원, 삶·문화·경제 도시’ 목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이뤄낼 ‘정원도시 순천’의 밑그림이 나왔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3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조직위원회는 최근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정원도시의 청사진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이 삶과 문화, 경제가 되는 도시’를 목표로 2023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해 수립했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권, 순천만습지 등 주행사장과 일상의 정원들을 동선으로 연결해 순천시 도심 전역을 정원화 한다는 구상이 담겨져 있다.

먼저, 죽도봉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죽도봉은 순천시민들의 휴식공간일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공간이다. 전망 정원과 전망 데크길 등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숲속의 미술관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죽도봉과 이어진 연계해 장대공원에는 꽃야자국, 카페 등을 조성해 도심권과 연계해 나가고, 역사문화정원은 전망 데크길 등 무장애 둘레길로 조성해 사회적 약자 등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동천은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 그리고 순천만습지를 연계하는 핵심 구역이다. 육전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동천 합수부 지점, 순천교, 팔마대교 등 지형을 고려해 친수 조망데크를 설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각 회랑을 활용해 벽면녹화와 공중가든, 토피어리(식물을 여러 모양으로 자르고 만든 것) 등으로 물위의 정원을 연출한다.

국가정원에서 도심권으로 정원 확산의 핵심 축이며 관광 역할을 하게 될 생태정류지 정원은 습지정원과 수생식물원으로 만들어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은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와 정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 등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관

람차 동선과 게이트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13개 국가의 정원을 볼 수 있는 세계정원은 각각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별 특화 시설물을 보완하고 역사와 문화, 휴게 공간을 강화시켜 리뉴얼할 계획이다. 국가정원 서쪽의 나무도감원은 수목의 종류 등을 정비하고 한국정원과 연결을 강화해 관람객을 유도에 간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사이의 문학정원은 습지와 문학적 감수성을 살려내고, 바로 옆 낭트정원은 리뉴얼을 통해 문학 전시회 등이 열리는 곳으로 개선하게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순천시, 외국인 유학생에 800만원 상당 ‘권분’ 물품 전달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0명에게 800만원 상당의 권분가게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국에서 힘들게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순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코로나 극복 응원 메시지를 담아 유학생들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군사쿠테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 2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권분물품은 시민 및 단체·기업들의 후원과 기부로 이뤄졌다. 컵라면·티슈·세제 300세트, 덴탈마스크 1만매, 여성위생용품, 음료, 과자 등 800만원 상당의 생활물품이다.



‘권분가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순천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9일 개소했으며, (세순천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권분(勸分)’은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관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유층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미풍양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지역 농·축협,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는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최윤선 농협 고흥군지부장, 추부행 거금도 농협 조합장, 이광수 고흥농협 조합장, 양수원 녹동농협 조합장, 신선식 두원농협 조합장, 이재후 팔영농협 조합장, 박미화 풍양농협 조합장,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 김중암 축협조합장이 참석했다.

최윤선 농협 고흥군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흥군민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을 드리고자 농·축협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흥군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시청 별관 증축 예산 또 전액 삭감

시의회 ‘예산낭비’... 지난해 이어 두번째

권오봉 여수시장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사 별관 증축사업 예산이 시의회에서 또 다시 삭감됐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끝에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문수청사 매입 예산 35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본청

사 별관 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에도 별관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4억9000여만원을 상정했으나, 의회는 “예산 낭비”라며 전액 삭감했다.

여수시 본청사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여(廳) 통합으로 여수시가 되면서 학동에 있는 1청사에 자리 잡았으나 여서동에 있는 제2청사와 문수동 제3청사로 분산되는 등 8곳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다.

문수동 제3청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을 받아 청사 통합론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본청 두편 주차장에 392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15일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잇따라 별관 증축에 반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청사에 별관을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를 상대로 좀 더 설득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감염병대응팀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

고흥군이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이 최근 고흥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종합민원과는 방대한 직제와 인력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성격에 따라 민원토지과와 공정허가과로 분리, 개편한다.

건축 관련 각종 개발행위와 요식업 등 서비스업

의 인허가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공정허가과’로 정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한다. 아동학대, 공연문화, 어촌뉴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7개 부서에 각각 1명씩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희망로타리클럽,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쌀 600kg 기탁

광양희망로타리클럽이 최근 광양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600kg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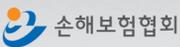
기탁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재경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광양희망로타리클럽 최대원 초대 회장과 이국주 차기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대원 광양희망로타리클럽 회장은 “광양희망로타리클럽 창단 기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쌀을 후원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